

웰바이오텍EVC, 우수 기술력 공개

군산 소재 도내 유일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 자체 브랜드 'evLUCY(이브이 루시)' 개발 출시 발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군산에 소재하고 있는 '웰바이오텍EVC'에서 EV 충전기 제품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웰바이오텍EVC는 전기차(EV) 7kW 완속 충전기, 100kW 급속 충전기, 200kW 초급속 충전기를 자체 브랜드 'evLUCY(이브이 루시)'로 개발해 70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이번 제품 발표회를 통해 웰바이오텍EVC는 다양한 충전기 라인업과 우수한 기술력을 알렸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전력을 소개하고 도내 다른 지역에 확대 의지

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충전기 관련 미국·이탈리아·중국·홍콩 해외 바이어 등 많은 국내외 인사가 참여했다.

웰바이오텍EVC는 EV 충전기 브랜드 'evLUCY'를 통해 7kW 완속 충전기의 고급형·표준형·보급형 모델, 100kW 급속 충전기, 200kW 초급속 충전기 등 다양한 모델을 공급 중이다. 해당 제품들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 및 형식승인 완료 후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을 완료했다.

국제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이자 올해부터 국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및 운영사업의 필수조건으로 지정된

OCPP 1.6(Open Charge Point Protocol) 보안인증도 획득했다. 미국 안전인증(UL), 유럽 안전인증(CE) 취득도 진행 중이다.

도내 유일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제조업체인 웰바이오텍EVC는 지난 5월 전라북도 군산에 1공장 설립에 이어 김제에 2공장 추가 조성 추진 중이다. 전기차 충전기 데이터 관리 토탈 플랫폼인 'evSPEED'도 구축과 이를 통해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와 더불어 관계 모니터링, 유지보수, A/S 등 전국 데이터팀 통합 관리가 가능한 전기차 특화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웰바이오텍EVC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전기차 충전기를 소개하고 제품의 우수성을 충전기 시장에 공개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 '인기'

누적 이용객 70만명 돌파... 52개 혁신창업기관 창업정보 제공

전라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는 '전라북도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www.jbc.or.kr)'가 누적 이용객 70만 명을 돌파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라북도 창업정보온라인 서비스'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등 창업정보 수요자와 공급자간 mismatch을 해소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구축·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플랫폼에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대학창업보육센터 등 지역 내 52개 혁신창업기관 및

입주·보육기관을 아우르는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시제품 제작, 자금 확보, 입주·보육정보 등 창업자의 관점에서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동안 전북도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52개의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유도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살아있는 창업정보' 제공에 힘써 왔다.

그 결과 누적 사업공고 3,100여 건, 일일 이용자가 1천 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이용객이 70만 명에 달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내년에는 웹 플랫폼에 이어 모바일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 출시할 계획에 있어 창업자의 이용 편의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운동목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창업정보의 맞춤형 인스톨 제공은 창업하고 싶은 전북을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전북 창업정보 온라인 서비스가 지역의 창업자들의 정보 감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초기 스타트업 투자 위한 민간투자조합 조성

전북도·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연말까지 2개 총 6억원 규모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는 초기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개인투자조합을 오는 연말까지 2개 조성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2건의 개인투자조합 '요즈마 로간 전북효성 탄소혁신펀드'(이하 탄소혁신펀드)와 '전북벤처혁신투자조합1호'(이하 벤처혁신조합1호)로 각각 4억 원, 2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기업 전문 투자펀드다.

'탄소혁신펀드'는 탄소섬유관련 스타트업 투자가 주목적으로 전북도와 액셀러레이팅과 투자전문 기업인 (주)요즈마그룹코리아, 국내 액셀러레이터 (주)로간, (주)효성이 공동 출자해 4억 원을 조성한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개최된 '스타트

업 전북 창업대전 선포식'에서 '투자조합 결성식'을 시작으로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다.

'혁신투자조합1호'는 에그테크, 저탄소·신재생에너지, 혁신제조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의 도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2억 원을 조성하며, 전북창조센터가 직접 업무 집행조합원(GP)을 맡아 운용한다.

특히 '벤처혁신조합1호'는 지역의 선배 벤처기업들의 출자하여 후배 벤처기업들의 육성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는 점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이번에 펀드 결성에 참여한 선배 기업가는 △(사)벤처기업협회전북지회 이인호 회장, 한종선 이사 △올릭스 안종욱 대표 △디지털 최관용 대표 △

이지스엔씨유수환 대표 △내소남씨엔디 이준 대표 △한실어패럴 박연욱 대표 등 7명이 조합원으로 출자한다.

운동목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 산업을 이끌 혁신적인 초기 창업기업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며, "창업·벤처기업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경쟁력 높은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개인투자조합을 포함해 전북도가 출자한 지역 펀드는 총 9개로 총 2,308억 원 규모며, 1,786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전북도는 지속적으로 펀드를 조성하여 창업·벤처기업의 도내 유입을 확대하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동에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은 2022년 KOREA MICE EXPO에서 전라북도&전주시 홍보관을 운영했다.

전북도, 새만금유역 시·군 수질개선사업 평가 실시

전북도는 올해 새만금 상류 유역 7개 시·군의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수질개선사업 평가는 시·군의 수질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을 통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2021년~2030년)의 실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올해는 3단계 수질대책의 2년차로, 시·군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3월 △재정관리, △가축분뇨 관리, △하수도사업추진, △비점오염원관리, △수질개선 홍보·교육 등 5개 분야에 11개 지표를 확정해 시·군에 평가 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해 왔다.

도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구성하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12월 중 최

종 평가를 완료할 계획이다.

평가결과 최우수 1개 시·군에는 도지사 훈격의 기관표창과 포상금 1,000만 원, 우수 1개 시·군에도 기관표창과 포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한 담당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

나혜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새만금호의 깨끗한 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것은 중앙정부나 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고, 유역을 관리하는 시·군과 함께 명품 새만금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서 해외바이어 대상 전북도·전주시 개최지 홍보

회의시설·인센티브 관광지 홍보·중소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 집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은 2022년 KOREA MICE EXPO에서 전라북도&전주시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KOREA MICE EXPO는 국내 최대규모의 마이스 산업 대표 전시박람회로, 올해는 세계 20개국 200여 명의 바이어를 비롯해 국내 지자체와 마이스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재단은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전주시 공동 홍보관을 조성해 전라북도, 전주시의 회의시설과 인센티브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Excellence in Small MICE'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에 집중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 소노벨 변산, 국립공원공단 내장산

생태탐방원, 순창 쉼랜드, 산속등대, 아쿠아티파크 아미존,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등 전북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및 유니크베뉴, 도내 마이스 유관기관이 함께 참가해 100건 이상의 유치상담 건수를 달성했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전라북도가 앞으로 중소규모 마이스 행사 유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